



## 특집을 내면서

**7월** 1일 KBS가 위성방송 전파를 발사하게 됨에 따라 국내 방송산업도 이제 본격적인 위성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새로 선보이는 디지털 위성방송의 잠재력은 상상 이상이며, 방송개념 자체의 대변화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국내 방송산업을 구조개편의 상황으로 몰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궁화 위성을 이용한 국내 디지털 방송의 출발로 통신에 이어 방송에서도 위성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주개발이란 용어는 썼지만 ‘우주산업’이란 용어는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우주개발이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개척의 개념으로 국가의 힘을 과시하거나 인간 의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만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우주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기 시작했으며, 최근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우주산업이 다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등장했습니다. 이동통신이나 위성방송과 같은 상업적인 수요가 커진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우주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많은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국내 우주산업을 돌아보기 위한 기회를 갖기 위하여 이번 호에서는 「국내 우주산업의 기술현황 및 전망」을 특집주제로 꾸며 보았습니다. 위성통신 기술에서 버스시스템, 중계기 시스템, 지상설비 및 관제기술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고, 발사체의 국내기술 수준 및 산업체 현황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습니다.

본 특집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할애하여서 옥고를 집필하여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집위원장 김 성 규